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Contemporary Street Fashio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Proposed Karl Rosenkranz

주저자

김 미 현 Kim, Mi-hyun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f_art@cau.ac.kr

투고일	2019.06.07	심사일	2019.07.15	게재확정일	2019.07.26
-----	------------	-----	------------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 2.2. 현대 스트리트 패션의 이해
 3. 현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사례 고찰
 - 3.1. 베트멍(Vêtements)
 - 3.2. 오프 화이트(Off-White)
 4.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
 - 4.1. 무형식
 - 4.2. 부정확성
 - 4.3. 형태의 파괴 및 변형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Keyword

칼 로젠크란츠, 추의 미학, 스트리트 패션
Karl Rosenkranz, aesthetics of ugliness, street fash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shion design according to fashion trend, street fashion, which is drawing attention as fashion trend, was looked at from the aesthetic of ugliness point of view of Karl Rosenkranz.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rst seek a research perspective to grasp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street fashion design, which is difficult to interpret from a general perspective, and to understand its background.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Vêtements by Demna Gvasalia and Off-White by Virgil Abloh, the flagship street fashion brand that has recently emerged in high fashion, deriv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proposed by Karl Rosenkranz.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proposed by Karl Rosenkranz,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 have been derived by intangibles, inaccuracy, de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angibles were characterized by breaking the rules of stereotyped fashion and reversing the interesting through a combination of incongruous and disorderly elements. Second, inaccuracy is a tendency of compromiseism, which obscures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ge, time and space in fashion, thus presenting a paradoxical design. Third, the de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form is the dissonance of the intended abnormal distortion, giving the viewer a strange or comical feeling, such as eccentricity, that makes its feel creative.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유행 경향에 따른 미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패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을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은 먼저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해석이 난해한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관점을 모색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하이패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데나 바잘리아의 베트멍과 버질 아블로의 오프 화이트의 디

자인 특성을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도출한다.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은 무형식, 부정확성, 형태의 파괴 및 변형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식은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을 깨트리며 무질서 같은 부조화스러운 요소들을 조합한 복합된 조화를 통해 흥미로움을 역으로 유발한다. 둘째, 부정확성은 절충주의의 경향으로 패션에서 성, 나이, 시간, 공간 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한다. 이는 유연성을 나타내며 역설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셋째, 형태의 파괴 및 변형은 의도된 비정상적인 왜곡의 부조화이다. 이것은 보는 이에게 기이함과 같은 낯설음 혹은 코믹함을 주어 창의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유스 컬처의 유행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슬레저 룩, 어글리 패션, 스포티즘과 같은 스트리트 패션이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힙합의 유행에 따라 뮤지션인 지코, 오혁, 빈지노와 같은 젊은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이 SNS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의 차별적인 패션 감각과 스타일은 하이패션 콘셉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으로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버버리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를 영입하거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감성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수 특정 계층의 하위문화 트렌드에서 하이패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현재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인 베트멍(Vêtements)의 데мна 바잘리아(Demna Gvasalia)와 오프 화이트(Off-White)의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그들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나이키, 슈프림, 카파, 반스, 아디다스, 타미 힐퍼거, 버버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유행 스타일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은 주류 문화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스트리트 패션은 에슬레저, 고프코어, 스포티즘, 힙합, 유스 룩의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과거의 미적 기준과는 다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패션 트렌드의 빠른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패션 트렌드의 미적 관점은 일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와 파악이 난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대의 사회 현상과 미적 관점의 논의로서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문화의 한 부류라 할 수 있는 젊은 감성의 트렌드는 그 시대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투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대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스트리트 패션 컨셉을 주도하고 있는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트렌드로서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 관점을 모색하고 그 배경을 이해한다. 둘째, 최근 하이패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데мна 바잘리아의 베트멍과 버질 아블로의 오프 화이트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스트리트 패션의 대표적 디자이너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데мна 바잘리아의 베트멍과 버질 아블로의 오프 화이트 브랜드를 살펴보고, 이들 사례에 나타나는 추의 미학에 대해서 연구 한다. 연구 대상은 데мна 바잘리아의 베트멍과 버질 아블로의 오프 화이트로 하고, 연구 범위는 힙합의 유행과 함께 패션 트렌드로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 컨셉 유행시기인 2016-2019년까지로 한다. 연구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연구 구성도

2. 이론적 배경

2.1.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추는 미의식의 관점에서는 미적 규범에 어긋나는 반대 개념으로 추한 것, 낮은 것, 역겨움, 경악, 공포 등을 의미하지만 미의식의 담론 원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 칼 로젠크란츠는 긍정적이며 완전성을 가지는 미의 개념에 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완전하지 못한 것을 추로 보았다. 또한 자연 형태와 인간 내면의 정신에서 표출되는 추 그리고 예술의 미를 부각하고 즐거움을 주는 추로 그 범위를 분류하고 추를 미학적 대상이 아닌 미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²⁾ 이에 따라 칼 로젠크란츠는 ‘추의 미학’에서 추의 개념을 시대에 따른 추를 대상으로 미학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미적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였다.³⁾ 칼 로젠크란츠는 추를 미적 대상의 형식과 관계 표현에 따라 형태 없음, 부정확성, 왜곡과 기형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⁴⁾ [Table 1]은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칼 로젠크란츠는 추의 형태 없음을 형상의 반대 개념인 불일치, 불균형, 형태의 파괴로 설명하였다. 불일치는 형식이나 형태가 어긋나서 맞지 않는 것으로 형태적인 것,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형태의 난잡성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다양함을 인정하여 형식의 규정이 없는 무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불균형은 비대칭을 의미하는데 상이한 것의 치우침을 통한 조합으로 기형을 의미

하며 추의 즐거움인 코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있다고 하였다. 부조화는 부조화한 것들의 조화에 따른 모순으로 나타나 불규칙을 통한 시각적 흥미 유발을 의미한다.⁶⁾

일반적으로 미적 형상에서 정확성은 이질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칼 로젠크란츠의 추에 대한 부정확성은 보편적인 것, 특수한 양식, 개별 예술들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오류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것의 보편적인 것 즉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일탈로서 부정확성은 정신적, 역사적, 관습적인 것에 대한 정확성의 거부이다. 특수한 양식에 대한 모순과 오류는 민족양식이나 유행의 양식이 갖는 규범이나 유형의 거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별 예술 규칙의 위배는 예술에서 근본이 되는 것의 오류로서 잘못된 형태와 색채를 갖는 등 예술 양식을 혼합하는 불완전한 미를 보인다.⁷⁾

[Table 1]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추의 구분	하위개념	특성
무형식	무형	무형식으로 원래의 형태와 형식을 파괴하는 것으로 경계나 구별이 모호하여 난잡성을 가짐
	비대칭	불균형으로 그릇된 대조를 통한 차이의 기형
	부조화	불규칙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음으로 흥미유발
부정확성	보편적인 의미에서 부정확성	예술적, 물리적, 심리적, 역사에 대한 일탈로 올바르지 않은 것
	특수한 양식에서의 부정확성	기본 양식에 반하는 모순으로 여러 예술양식을 혼합
	개별 예술에서의 부정확성	고유성에 반하는 오류에 따른 불분명한 특성
형태 파괴 및 기형	비속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에 반하는 천박함, 하찮음, 연약함, 비천함
	혐오	질렬, 죽음, 추악함과 같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혐오, 공포, 두려움
	캐리커처	원래의 이미지를 왜곡한 모순의 희극성

추의 왜곡과 기형은 형태에 있어서 조화나 비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칼 로젠크란츠는 이를 비속,

1) 라영균. (2009). 미적 범주로서의 추, 세계문화비교연구, 제29집, p.305.
 2) 칼 로젠크란츠, 조경식 역. (2008). 추의 미학, 나남출판, p.27.
 3) 현명관, 장애란. (2012). 현대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타투 메이크업, 한국디자인포럼, 36(36), pp.105-116.
 4) 이해원. (2013). 칼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을 통한 무용창작 작품 「낮선 저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2.
 5) 선혜미.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6) 칼 로젠크란츠, 조경식 역. (2008). 추의 미학, 나남출판, pp. 87-179.
 7) 이해원. (2013). 칼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을 통한 무용창작 작품 「낮선 저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2.

혐오, 캐리커처로 세분화하고 있다. 비속은 미의 개념에 대한 부정으로 하찮음, 연약함, 비천함으로 표현되는데 위대함, 강함, 위엄에 대한 부정으로 이는 이상함, 기괴함, 익살이라는 감정적인 추라 할 수 있다. 혐오는 즐릴, 죽음, 추악함으로 귀여움에 따른 예쁨의 반대되는 감정으로 기형이나 어색함이라고 하였다. 죽음, 추악함, 조롱, 경멸과 같은 추의 표현은 혐오, 공포, 두려움, 비정상, 비현실적인 감정적의 추로 나타난다. 캐리커처는 원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뒤틀린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이는 일반적인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원래의 이미지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추는 윤리적으로 혹은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미의 기준에 상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칼 로젠크란츠는 이러한 추는 아이러니를 통해 희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순의 감정적인 추로 보겠다.⁸⁾

2.2. 현대 스트리트 패션의 이해

스트리트 패션은 하이패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194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하위문화의 형태로 발달되었다.⁹⁾ 그 시대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만의 공감대를 통해 형성되며 주류 문화에 대항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라 비트, 테디 보이, 히피, 펑크, 힙합, 비보이, 테크노와 같은 하위문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패션스타일은 1980년대에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스트리트 패션 영감이 하이패션에 도입되면서 패션 트렌드로서 그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대표적으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는 반항적인 펑크 문화를 이끈 영국의 대표 디자이너이다. 그녀는 펑크 패션을 통해 대중들에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오늘날 하이패션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이러한 스트리트 패션은 일부 젊은 층이 주도하여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리의 유행으로 다양한 감성과 가치관이 종합되는 속성을 가진다.¹⁰⁾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집단이 착용이

면서 개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스타일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다.¹¹⁾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스트리트 패션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에 선보였던 패션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스트리트 패션은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류에 맞아 일반 대중들도 추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새로운 감각과 개성을 살릴 수도 있다.¹²⁾

최근 유스컬처의 영향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패션 트렌드의 대표적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리트 패션은 에슬레저, 고프코어, 어글리 패션, 스포티즘, 힙합, 유스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의 경향으로 이와 관련된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의상을 착용한 유명인의 이미지가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일반 대중의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현대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은 일부 젊은 계층의 독창적인 패션 감각이 트렌드화 되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 상향전파 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은 SNS를 중심으로 나이, 성별, 계층을 초월하여 빠르게 글로벌화 되고 있다.¹³⁾ 이는 패션 시장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어 새로운 패션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패션 사이클을 생성시키고 있다.¹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의 연구는 사회와 문화 변화를 반영하는 패션 현상과 소비자의 표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3. 현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사례 고찰

3.1. 베트멍(Vêtements)

베트멍(Vêtements)은 2014년 댐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가 런칭한 브랜드로 오버 사이

8) 윤예진. (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미학 :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4-91.

9) 이영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3-34.

10)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8699&cid=40942&categoryId=32087>

11) 이영재. (2003). 현대 스트리트 패션 분석 및 선호도 연구: 강남권과 강북권의 비교 분석, 복식, Vol.53, No.2, pp.87-100.

12) 이은숙, 김새봄. (2018). Word Cloud 분석을 이용한 스트리트 패션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20, No.3, pp.51-52.

13) 이영재, 구인숙. (1997).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1, No.3, p.545.

14) 이미연. (2005).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Matchless Style 분석 : 캐주얼 및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Vol.55, No.7, p.77.

즈, 파격적인 칼라 매치, 촌스러운 스타일링의 패션으로 패션 시장에 변혁을 일으켰다.¹⁵⁾ 베트멍은 파격적인 실험적 패션인 아방가르드와 스트리트 패션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힙스터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베트멍의 수장인 템나 바잘리아는 옛 소련의 조지아에서 태어났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조지아를 떠나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자라다가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하였다. 월터 반 베이렌통크와 마틴 마르지엘라 그리고 루이비통의 디자이너였으며 현재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다.

그의 패션은 과장된 어깨, 긴소매, 높이가 다른 찢긴 밑단, 그래피티 로고를 유행시켰다. [Fig. 2, 3, 4]에서 처럼 인체의 일반적인 비율을 무시한 디자인과 거대하거나 좁게 솟은 어깨와 다양한 원단으로 형식없이 레이어드 된 스타일링은 새로운 감성을 연출한다.



[Fig. 2] 2016 FW 베트멍



[Fig. 3] 2017 SS 베트멍



[Fig. 4] 2018 FW 베트멍

템나 바잘리아는 리복, 폼테가르송, 나이키, 카과, 리바이스, 챔피온, 주시꾸띠르, 캐나다구스, DHL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브랜드에 새로운 디자인과 스타일을 더하여 선보이면서 셀럽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2017년 SS 컬렉션에서는 18개나 되는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이슈를 일으키며 오버 사이즈를 유행시켰다[Fig. 5].

이처럼 베트멍의 템나 바잘리아는 일반적인 패션의 관념을 깨는 창의적인 감각으로 신선함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구성의 통일성이 무시되며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컨셉이 형식 없이 공존

하며 나타내는 부조화가 흥미를 일으킨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적 관점에서는 인체의 비율이나 옷의 형태 그리고 디자인과 스타일의 이해가 난해하다.

특히 인체의 비례를 무시한 기괴한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이나 좁게 축소한 실루엣과 소매를 길게 늘리는 부조화스러운 형태나 거대하게 디자인된 신발은 기형스러운 외형으로 촌스러움과 코믹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챔피온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길게 늘린 소매와 긴 끈의 디테일 그리고 리복과의 협업을 통한 두꺼운 굽에 낙서한 듯한 그래피티가 특징인 일명 어글리 슈즈라 불리우는 디자인에서 잘 나타났다 [Fig. 6]. 특히 2018년 SS 시즌에는 컬렉션을 하지 않고 길에서 즉흥적으로 섭외한 일반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화보를 만드는 등 보편적인 개념에 반하는 작업을 통해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Fig. 7].



[Fig. 5] 2017 S/S 리바이스와 콜라보레이션



[Fig. 6] 리복 스니커즈 그래피티 퓨리



[Fig. 7] 2018 S/S 베트멍

3.2. 오프 화이트(Off-White)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스트리트 브랜드 오프 화이트(Off-White)의 창립자이며 루이비통 맨즈웨어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시절 스케이트 보드와 힙합을 즐기며 스트리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힙합이 그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하며, 본인의 콜라주와 같은 디자인 작업은 힙합과 같으며 이러한 작업 방식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한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 했지만 현재 혁신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을 통해 스트리트 패션을 하이패션으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¹⁶⁾ 버질 아블로는 건축을 전공한 패션디자이너이자 스타일리스트, 앨범 커버 작업과 DJ를 하는 등 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패

1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60243&memberNo=35758720&vType=VERTICAL>

16)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1461025390>

선에 잘 반영하고 있다.

2012년 버질 아블로는 ‘파이렉스 비전(PYREX VISION)’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캐주얼 브랜드인 챔피언(CHAMPION)과 럭비 랄프 로렌(Rugby Ralph Lauren)에서 싸게 구입한 빈티지 티셔츠와 셔츠에 파이렉스라는 문구를 프린팅하여 재판매하면서 이슈가 되었다[Fig. 8]. 그 후 오프 화이트를 론칭하고 전위적이고 컬트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버질 아블로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오프 화이트는 2013년 남녀 컬렉션을 시작으로 고급스럽고 유행 있는 럭셔리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지향해 주목받고 있다.¹⁷⁾ 미스 반 데어로에 (Mies Van Der Rohe)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사선 스트라이프를 브랜드의 심벌로 하고,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적 프린트를 활용해 힙합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학생시절 나이키에 보냈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협업한 10개의 운동화 디자인 시리즈 더텐(The Ten)은 신발에 매단 케이블 타이와 짐을 묶는 끈을 연상시키는 인더스트리얼 벨트로 크게 성공하였다[Fig. 9, 10]. 버질 아블로의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을 바탕으로 그만의 감각을 더하는데 온갖 아이템과 소재를 뒤섞고 각 요소의 부분을 찢거나 이어 붙여서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이키, 반스, 컨버스, 무라카미 다카시, 리모와 캐리어, 에비앙 그리고 이케아 가구 회사와도 협업을 하는 등 창작의 영역 제한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버질 아블로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슈를 모으며, 동시대 패션에서 가장 진보적인 디자이너로 통용되고 있다.¹⁸⁾



[Fig. 8] 파이렉스 비전



[Fig. 9] 나이키 더텐



[Fig. 10] 인더스트리얼 벨트

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0276.html

18) <http://www.wkorea.com/2019/02/08/%ec%96%b4%eb%a5%b8-%ec%95%84%ec%9d%b4%eb%a5%bc-%eb%a7%8c%eb%82%98%eb%8b%a4/>

오프 화이트는 스트리트 패션 감성 기반의 오버 사이즈 실루엣을 연출하는데, 반바지, 레깅스, 삭스를 레이어드 하거나 티셔츠, 후드 티셔츠, 셔츠, 윈드 브레이커, 자켓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한다[Fig. 11]. 스트리트 패션 감각에 포멀한 디자인 감성을 믹스한 아이템의 형태 해체와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새로운 패션 아이템 형태의 구성을 만든다[Fig. 12]. 옷의 구조를 뜯어서 분해하고 재구성하거나 기존의 틀에 다른 소재를 덧대거나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옷의 형식을 파괴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Fig. 13]. 예를 들어 리바이스 빈티지 청바지를 해체해서 재구성한 디자인은 왜곡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이는 일반적인 패션의 미적 기준과 다른 유니크함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오프 화이트의 일반적인 패션 컨셉에서 벗어난 온갖 요소와 패턴 그리고 다채로운 색이 조합된 양식은 새로운 아이러니를 갖게 되고 의외의 감성을 만든다.



[Fig. 11] 2015 SS 오프화이트



[Fig. 12] 2017 FW 오프화이트



[Fig. 13] 2016 FW 오프화이트

4.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의 특성

4.1. 무형식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에 대한 관점에서 형태 없음은 패션에서는 명확한 패션 컨셉이 없는 무형식이라 할 수 있다. 패션이 가지는 미적 관점에서의 불일치하는 표현이나, 형태를 과장 및 왜곡하는 형태의 비대칭은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패션에서 컨셉의 범위와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나면서 부조화의 특성으로 보는 이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대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 사례에서 이러한 추의 미에 대한 무형식의

불일치 특성은 패션에서는 일반적 미적 기준의 컨셉으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난해함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현대 패션에서 미스매치는 서로 상이한 요소의 조합으로 새로움을 주는 디자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에서 선보인 미스매치는 다수의 연결성이 없는 요소의 혼합을 통해 패션디자인 의도에 대해 보는 이에게 이해의 난해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 의도의 이해를 불가하게 하는 다양한 요소의 미스매치의 난해함은 다른 면에서는 보는 이에게 낯설음을 주어 흥미를 유발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패션에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콜라보레이션에서 이러한 특성이 강조되는데, 한 컬렉션에서 18개의 패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보인 베트멍의 2017년 SS 컬렉션에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났다.

그리고 추의 미에서 상이한 것의 치우침에 따른 불균형은 패션에서 형태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며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옷의 비율이나 형태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앞뒤가 반전되거나 길이를 과장하여 늘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비대칭 특성이 나타났다. 인체 사이즈에 맞지 않게 어깨를 지나치게 오버 사이즈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하여 그 비율을 치우치게 표현하고,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진 소매, 기형적으로 보이는 좁고 솟은 어깨, 그리고 작은 듯 짝끼는 옷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션에서의 미와 반대되는 이미지이다.

이처럼 추의 미에서 불일치는 형식이나 형태가 어긋나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패션에서 연관성이 없는 디자인 요소의 조합을 통한 형태와 이에 따른 디자인 주제의 모호함은 형태의 난잡성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디자인은 아무런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촌스러움이나 기괴함을 연출하면서 기존의 미의 기준과 다른 패션으로 나타나 코믹스러움 같은 재미를 준다. 그리고 규칙성이 없는 물형식의 착장 방식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실루엣을 창출하고 있었다.



[Fig. 14] 2019 FW 오프화이트



[Fig. 15] 2016 FW 베트멍



[Fig. 16] 2016 FW 베트멍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의 [Fig. 14] 사례를 분석해 보면 디자인 주제나 컨셉을 파악할 수 있는 다수의 디자인 요소가 컨셉의 연결성이나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이한 조합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컨셉과 요소의 규칙성이 배제된 불일치한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무형식의 난잡성을 보인다. 그리고 과장된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이나 어깨를 기형적으로 높인 패션 아이템의 외형과 인체 비례를 무시한 길게 늘린 소매와 크거나 혹은 지나치게 짧거나 작은 옷은 불규칙한 형태와 비례로 인해 부조화를 나타낸다. [Fig. 15, 16]에서 처럼 신체 사이즈 보다 크거나 맞지 않은 표현은 기이한 실루엣을 연출하여 착용자의 이미지를 불편해 보이게 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며 흥미를 유발한다.

4.2. 부정확성

확실하지 않은 것을 부정확하다고 하는데 패션에서 추의 미에 대한 부정확성은 일반적인 패션을 인식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도 부가되지 않음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리트 패션에서 추의 미에 대한 부정확성은 최근의 글로벌화에 따른 각 국가 문화의 다양성,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젠더에 반하는 젠더리스, 나이를 구분에 반하는 에이지리스, 정장과 캐주얼 구분과 같은 패션 캐릭터 분류의 모호성 등을 반영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반하는 패션 디자인이나 스타일링은 받아들이는 개인의 취향과 믹스되면서 패션의 조형성을 이해하기에는 모순되고 불분명한 부정확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 사례에서 새로움에 반하는

레트로, 빈티지, 그런지 스타일이 최근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뉴트로라는 스타일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션디자인은 캐릭터와 감성을 구분하여 그 스타일과 룩을 전개하는데, [Fig. 17]와 같이 최근에는 과거의 복고 스타일을 현대의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스타일이 제안되고 있다. 이처럼 레트로라는 과거의 스타일이 트렌드인 스포티즘, 애슬레저 등과 합쳐져 새로운 무드를 재창출하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보는 이에게 미적 기준에 반하는 난해함을 주어 추의미에 대한 부정확성을 나타낸다.

또한 성의 구별을 파괴한 젠더리스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젠더리스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Fig. 18]에서처럼 나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모델과 스타일링에 나타나는 에이지리스,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소수민족의 성향이 도시화 되면서 국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트렌드와 합쳐져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되는데, 오프 화이트의 빈티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해체와 조합 그리고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Fig. 19].



[Fig. 17] 2018 SS
오프화이트



[Fig. 18] 2017 FW
베트멍



[Fig. 19] 2016 FW
오프화이트 x 리바이스

이처럼 현대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제 3세계, 젠더, 나이, 시간, 지역, 디자인 컨셉에 대한 요소가 구분 없이 패션으로 표현되었는데, 기존의 패션디자인 원리에 반하는 형태로 이는 추의 미학에서 부정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확성은 스트리트 패션에서 특정 지역이나 나라의 특성 추구, 여성이나 남성성의 구분, 나이의 강조, 정장과 캐주얼의 구분과 같은 디자인 코드의 이분법적 개념을 파괴하고 일원화를 거부하며 존재하지

않는 유연성을 지향하며 역설적 디자인을 나타낸다.

4.3. 형태의 파괴 및 변형

형태의 파괴와 변형은 패션에서 조화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조화가 무시된 상황에서 보는 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은 주로미의 감정인 숭고함과 반대되는 것으로 비속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된 형태 파괴는 불쾌함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추를 나타낸다.

먼저 비속은 격이 낮고 속된 것으로 비루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정의하는데, 본 연구의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하위문화인 90년대 힙합 스타일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90년대 힙합을 주도한 LA의 흑인은 실제 갱의 부류로 이들이 감옥에서 사이즈 구분 없이 입었던 큰 사이즈의 옷, 사이즈가 맞지 않은 큰 옷으로 인해 속옷이 보이는 베기 팬츠, 죄수복인 오버롤은 후에 일상의 스타일로 받아들여 졌다. 오버사이즈의 오버롤 스타일은 잘 맞게 차려 입은 것에 반하는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ig. 21]과 같은 큰 사이즈의 상의와 상반신을 노출한 듯한 타투 티셔츠는 불량스러워 보이도록 하여 공포심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스포츠 웨어와, 스니커즈, 캐주얼, 야구 모자, 모피 등의 혼성적 특성의 아메리칸 스트리트 캐주얼 스타일로 변형되어 나타났다.¹⁹⁾ 그리고 럭셔리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가난함은 푸어룩, 그런지, 패치워크, 빈티지와 같은 스타일로 스트리트 패션에서 표현 되고 있었다. 버질 아블로는 리바이스 중고 청바지를 그의 감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낡은 옷을 수선하듯한 패치워크와 올이 풀려있는 단치리는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다.

힙합에서 주로 표현되는 [Fig. 21]의 군복은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저항의 테러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이는 저항패션을 상징하며 카무플라주와 밀리터리 자켓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포티즘은 캐주얼 스타일과 혼용되어 의외의 새로움을 준다. 스포츠 웨어의 자유로움에 반하는 스타일

19) 엄지영. (2015). 2015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힙합패션스타일 : 2000년 이후 컬렉션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5-41.

로 억압을 반대로 강조하여 [Fig. 22] 처럼 모순의 희극적 요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형태의 파괴에 따른 변형은 왜곡된 표현으로 이상적인 것에 대한 비틀기이자 풍자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 왜곡은 과장이나 기형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신체 비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부조화를 통한 의외성을 주어 개성 있는 디자인이 된다. 특히 왜곡은 일반적인 옷의 형태와 인체 비례에 반하는 표현으로 보는 이에게 낯설음과 기이함 혹은 혐오스러움과 코믹함을 주는 등 의도적인 부조화를 만든다.²⁰⁾ 그리고 이러한 왜곡과 기형은 일반적인 일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로서 디자인의 표현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다.



[Fig. 20] 2019 SS 베트멍



[Fig. 21] 2018 FW 베트멍



[Fig. 22] 2019 SS 베트멍



[Fig. 23]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특성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유행 경향에 따른 미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패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을 추의 미학 관점에

서 살펴보았다.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첫째,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은 일반적인 미적 관점에서 그 해석이 어려운 스트리트 패션을 살펴보기에 타당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베트멍과 오프 화이트의 사례 고찰을 통해 그 특성을 유형화 하였다. 셋째,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스트리트 패션의 미적 특성을 무형식, 부정확성, 형태의 파괴 및 변형으로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미적 정의와 그 이해가 어려운 패션 트렌드에 대한 연구 방법론 제안에 따라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에서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Fig. 23]. 먼저 무형식은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을 깨트리며 무질서 같은 부조화스러운 요소들을 조합한 복합된 조화를 통해 흥미로움을 역으로 유발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부정확성은 절충주의의 경향으로 패션에서 성, 나이, 시간, 공간 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여 우연성을 나타내며 역설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형태의 파괴 및 변형은 의도된 비정상적인 왜곡의 부조화로서 보는 이에게 기이함과 같은 낯설음 혹은 코믹함을 주어 창의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최근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 반하는 패션 디자인이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촌티 패션 혹은 아재 패션 등으로 불리우면서 다양한 스타일링 방식으로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션 유행 현상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 사례들은 일반적인 미적 기준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천. (2019).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안토니 카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영균. (2009). 미적 범주로서의 추,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9집, 305-325.
- 선혜미.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김천. (2019).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안토니 카로의 작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6-17.

- 엄지영. (2015). 2015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힙합패션스타일 : 2000년 이후 컬렉션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예진. (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미학 :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연. (2005).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Matchless Style분석 : 캐주얼 및 여성복을 중심으로, 복식, Vol.55, No.7, 76-88.
- 이영재, 구인숙. (1997).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1, No.3, 544-558.
- 이영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재. (2003). 현대 스트리트 패션 분석 및 선호도 연구: 강남권과 강북권의 비교 분석, 복식, Vol.53, No.2, 87-100.
- 이은숙, 김새분. (2018). Word Cloud 분석을 이용한 스트리트 패션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20, No.3, pp.51-52.
- 이해원. (2013). 칼 로젠크란츠의 추 개념을 통한 무용창작작품 「낮선 저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칼 로젠크란츠, 조정식 역. (2008). 추의 미학, 나남출판.
- 현명관, 장애란. (2012). 현대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타투 메이크업, 한국디자인포럼, 36(36), 105-116.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88699&categoryId=40942&categoryId=32087>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0276.html
- <http://www.wkorea.com/2019/02/08/%ec%96%b4%eb%a5%b8-%ec%95%84%ec%9d%b4%eb%a5%bc-%eb%a7%8c%eb%82%98%eb%8b%a4/>
- <https://blog.naver.com/designpress2016/221461025390>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760243&memberNo=35758720&vType=VEITICAL>